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

신생아 아버지의
부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홍은주

신생아 아버지의
부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도교수 송 미 숙

이 논문을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2월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간 호 학 과

홍 은 주

홍은주의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송 미 숙 인

심 사 위 원 송 주 은 인

심 사 위 원 부 선 주 인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2016년 12월 21일

감사의 글

저 스스로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 과정 또한 쉽지 않았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석사 과정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저와 함께 해주신 송미숙 교수님. 늘 명쾌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교수님의 큰 가르침과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가슴 속 깊이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친절함 미소로 저의 질문에 응해주신 송주은 교수님과 섬세하게 작은 부분까지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신 부선주 교수님께도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자료수집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아주대학교 산부인과병동 김옥섭 파트장님, 쉬즈메디병원 김춘미 간호과장님, 베스트산부인과 김수영 간호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료수집을 도와주신 쉬즈메디병원, 베스트 산부인과 간호사 선생님들, 우리 아주대학교 산부인과병동 식구들의 배려 잊지 않겠습니다.

석사 과정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엄애현 팀장님. 많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잘 하고 있다는 말씀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관심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신 김옥섭 파트장님과 박양숙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년의 시간동안 함께한 구은희, 김수경, 천세령 선생님. 우리 동기들과 함께였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며 울고 웃었던 소중한 시간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동기들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믿음과 격려로 저를 이끌어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과 저의 선택을 지지해주고 늘 자랑스러움을 표현해 준 사랑스러운 동생이 있었기에 2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홍은주 올림

신생아 아버지의 부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신생아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 1개의 대학 병원 산부인과 병동과 2개의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출생 후 신생아실에 입실한 신생아 아버지 13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16년 9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였다.

연구도구로 부성정체성은 Osgood, Suci와 Tannenbaum(1957)이 개발한 어의 구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근거로 고효정(1996)이 번안한 모성정체성 척도를 양경미와 김순례(2010)가 아버지에게 측정 가능하도록 문항을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부성애착은 김지영(1994)이 개발한 척도를, 결혼만족도는 Roach, Feaizer와 Bowden(1981)에 의해 개발된 MSS(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최규련(1998)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 21.0 Win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부성애착은 평균 111.44 ± 12.32 점, 결혼만족도는 평균 50.75 ± 6.60 점, 부성정체성은 평균 58.83 ± 10.89 점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성정체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계획된 임신을 한 대상자($t=3.084, p=.002$), 아기순위가 둘째아이 이상의 대상자($F=-2.346, p=.021$), 원부성유형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많으며 잘 표현하는 유형'의 대상자가 '사랑도 표현도 부족한 유형'의 대상자에 비해 부성정체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105, p=.019$).

3. 부성정체성과 주요 탐색요인인 부성애착,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성정체성은 부성애착,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부성애착이 높을수록($r=.405, p<.001$),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r=.520, p<.001$) 부성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부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성애착, 결혼만족도와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월수입, 계획임신, 아기순위, 원부성유형을 독립변수로 함께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성애착($t=2.379, p=.019$), 결혼만족도($t=3.790, p<.001$)가 부성정체성과 관련된 유의한 변수로서 설명되었고, 독립변수들이 포함된 회귀모델은 유의하였으며($F=8.791, p<.001$), 이들 변수에 의한 부성정체성의 설명력은 31.4% 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부 간의 정서적 지지와 격려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부 갈등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부성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간호중재의 적용은 부성정체성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신생아, 부성애착, 결혼만족도, 부성정체성

차 례

국문요약	i
차례	iv
표 차례	vi
I. 서 론	1
A. 연구의 필요성	1
B. 연구목적	5
C. 용어정의	5
II. 문헌고찰	7
A. 부정정체성	7
B. 부정애착	8
C. 결혼만족도	10
III. 연구방법	12
A. 연구설계	12
B. 연구대상	12
C. 연구도구	13
D. 자료수집방법	14
E. 윤리적 고려	15
F. 자료분석방법	15

IV. 연구결과	17
A.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7
B. 연구대상자의 부성애착, 결혼만족도 및 부성정체성 정도	19
C.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성정체성	20
D. 연구대상자의 부성애착, 결혼만족도, 부성정체성 간의 관계	22
E. 연구대상자의 부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3
V. 논 의	25
VI. 결론 및 제언	30
참고문헌	32
부 록	39
1. 심의결과통지서	39
2. 설명문	41
3. 설문지	42
ABSTRACT	48

표 차례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8
<표 2> 연구대상자의 부성애착, 결혼만족도 및 부성정체성 정도	19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성정체성	21
<표 4> 연구대상자의 부성애착, 결혼만족도 및 부성정체성 간의 관계	22
<표 5> 연구대상자의 부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부모가 된다는 것은 역할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임정아, 유은광, 2002), 출산은 새로운 역할인식과 수행이 요구되는 발달적 위기 상황으로 산모는 심리적으로 불안, 걱정, 두려움을 느끼고(Bowen & Muhajarine, 2006), 배우자 역시 인식과 책임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주은경, 유은광, 2015).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은 성인기 사회화 과정의 한 단계로써 정상적인 생활 사건이며, 사회화 과정에 있어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인 부모로서의 역할전환을 의미하므로, 다가오는 부모역할에 대한 적절한 적응력을 필요로 하는 역할전환 시기이다(Russell, 1974). 전환이론(Transitional model)에 의하면 성공적인 역할전환은 전환의 결과지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결과지표인 정체성은 전환경험의 결과로 재형성된 자아 정체성으로써 이는 유동적인 개념이라 정의하였다(Meleis, Sawyer, Im, Hilfinger Messias, & Schumacher, 2000).

부모로서의 정체성이란 부모됨을 대표하는 개념으로(고효정, 1996), 부모의 역할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크면 정체성의 혼돈이 증가되어 부모의 역할획득이 지연되고 자녀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 장애를 가져오며, 나아가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방미란 등, 2000). 따라서 아버지 됨의 역할전환 시기에 새로운 역할과 환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환의 준비정도를 사정하고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아버지로서의 역할전환 준비를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Meleis et al., 2000).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은 출산과 육아에 소극적이었으나, 20세기 후반 부터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에서 양육 참여자로서 역할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Premberg, Hellström, & Berg, 2008). 즉,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잇따라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10,027건의 학대 가해자 중 81.1%는 부모였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게다가 아동학대가 계부와 계모에 의해 일어난다는 선입견과는 달리 전체 가해자의 77.2%가 친부모였고,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친부에 의한 발생 사례가 4,531건(45.2%), 친모는 3,211건(32.0%)으로 친부모 중 아버지에 의한 학대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이는 부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서 아버지 됨의 역할전환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또한 학대 가해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양육태도 및 양육방법에 대한 지식부족이었고(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성역할 자신감이 보고되었다(Sanderson & Thompson, 2002).

Mercer(1985)는 부모로서 역할행동의 성공적 수행과 자신감 증진을 위해서는 아기에 대한 부모로서의 마음 즉, 정체성과 애착의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정체성 발달에 애착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애착은 자녀의 양육과 역할수행에 영향요인(김아림, 2015)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부성애착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전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된

다. 부성애착은 아기의 출생 전 임신기간 동안 태아와의 관계형성에서부터 시작되고(Weaver & Cranley, 1988), 부모의 역할은 부모와 자녀의 애착에 기반하여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 것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므로(Mercer, 1985) 부성애착은 부성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핵가족화로 인한 부부 중심의 친밀한 부부관계는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정의 형성을 위한 원동력이 되고(이지민, 2013), 부부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 즉, 결혼만족도는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며, 동시에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서영옥, 2011). 부부 사이의 긍정적 상호관계는 부부와 자녀 관계에 반영되어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나아가 성공적인 부모의 역할수행으로 이어지게 된다(Berger & McLanahan, 2015).

즉,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관련하여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로서 역할수행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정주, 김용미, 2011), 결혼만족도는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대상이 대부분 영유아기 아버지에 국한되어 있어(연은모, 최효석, 홍윤정, 김정아, 2014; 김태순, 2013; 백경숙, 2011; 김영희, 신희정, 채영문, 2007) 아버지의 긍정적 역할수행의 근원이 되는 부성정체성이 형성되는 초기 시점에서 결혼만족도가 의미있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성정체성과 주요 탐색변인인 부성애착,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부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부성정체성의 영향요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나아가 긍정

적 부성역할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의미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B.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신생아 아버지의 부성애착, 결혼만족도 및 부성정체성 정도를 확인하고 부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부성애착, 결혼만족도 및 부성정체성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성정체성을 파악한다.
3. 대상자의 부성애착, 결혼만족도 및 부성정체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부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C. 용어정의

1. 부성정체성

- 1) 이론적 정의 : 남성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로서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최연순 등, 2010).
- 2)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Osgood, Suci와 Tannenbaum(1957)이 개발한 어의구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근거로 고효정(1996)이 번안한 모성정체성 척도를 양경미와 김순례(2010)가 아버지에게 측정 가능하도록 문항을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로서의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2. 부성애착

- 1) 이론적 정의 : 아버지와 신생아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애정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표현이나 반응, 행동 및 지각을 의미한다(Greenberg & Morris, 1974).
- 2)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김지영(1994)이 개발한 부성애착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성애착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결혼만족도

- 1) 이론적 정의 : 결혼생활의 전반에서 부부 개인이 경험하는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 감정을 의미한다(Hawkins, 1968).
- 2)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Roach, Feaizer와 Bowden(1981)이 개발한 MSS(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근거로 최규련(1998)이 수정한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II. 문헌고찰

A. 부성정체성

Erickson(1956)은 정체성을 상당 기간 동안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 자기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라 하였다.

부성정체성이란 남성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로 정의하는 것으로(최연순 등, 2010), 대부분의 남성은 결혼 후 첫 자녀의 출생으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인 아버지 됨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삶의 큰 변화와 더불어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기에 낯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며(김영두, 이대균, 2011), 부모로서의 새로운 역할 획득 과정에서 남성들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성미혜, 주경숙, 2007).

남성에게 있어 처음 경험하는 아버지 됨의 과정은 자아 정체성의 변화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아버지가 되었다고 느끼는 과정 자체가 자녀의 성장과 함께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여성들이 임신기부터 어머니 됨을 느끼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아버지가 되어가는 속도는 어머니에 비해 느린 편이다(이세미, 2009).

따라서 처음으로 아버지 됨을 경험할 때 긍정적인 역할인식이 기대되어지지만 남성들은 불편한 일이라고 인식하게 되어 아기 돌보기에 능숙해지기까지 많은 시간과 에너지의 투자가 요구되어진다(Barclay & Lupton, 1999). 결국 긍정적인 부성정체성의 형성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수행에 중요한 요인이고, 남성은 아버지가 되어가는 준비 과정을 통해 올바른 부성전환을 할 필요

가 있으며, 간호사는 이들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성미혜, 주경숙, 2007).

Mercer(1985)에 따르면, 아버지의 성공적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부성역할 자신감의 획득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앞서 긍정적인 부성정체성의 획득이 선행되어 져야 할 것으로 간주되지만, 현재 부성역할 자신감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김은숙, 2015; 이윤정, 2015; 정미라, 강수경, 이혜진, 2012; 송혜림 등, 2010; 황은주, 2003), 부성정체성과 관련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이 또한 대부분이 임부 배우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최경은, 2016; 양경미, 김순례, 2010).

정체성의 개념은 일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형성되는 것으로(양경미, 김순례, 2010)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버지 됨을 준비 중인 신생아 아버지를 위해 긍정적인 부성정체성의 형성과 부성역할 자신감의 획득, 나아가 아버지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수행을 유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B. 부성애착

애착은 ‘인간이나 동물이 어떤 특정 개체에 대해 형성하는 애정적 결합’이라고 하였다(Bowlby, 1969). Bowlby(1969)에 의해 애착이라는 용어가 소개된 이후 애착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신분석이론, 학습이론, 인지발달이론, 동물 행동학적 측면 등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되고 발달되었다(김지현, 2002). Ainsworth(1973)는 애착을 같은 공간 내에 서로를 같이 묶어주고, 시간을 초월해서도 지속되는 한 사람이 다른 특정한 사람과 형성한 애정

적인 유대라고 정의하였으며, 양육자와 유아의 초기 경험은 애착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Bowlby, 1982).

부성애착이란, 아버지와 신생아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애정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표현이나 반응, 행동, 지각을 의미한다(Greenberg & Morris, 1974). 즉, 긍정적인 부성애착의 형성은 신생아의 발달 과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성애착은 아기의 출생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가족 관계 속에서 위기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아버지로서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는데(Bowen & Miller, 1980),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는 자녀의 성 역할,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도덕성 발달,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아버지로서 성공적인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부성애착의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주경숙, 성미혜, 2009).

또한 아버지와 형성한 안정애착은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 양육이 어머니의 양육보다 아동의 이후 발달에 더 강력한 예언인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Rohner & Veneziano, 2001).

본 연구에서 고려한 부성정체성의 첫 번째 영향요인인 부성애착은 부모의 성공적 역할수행과 자신감 증진을 위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고(Mercer, 1985), 최근 부성애착과 부성역할 자신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김은숙, 2015), 부모의 성공적 역할수행과 자신감 증진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부성정체성과 부성애착 간의 관련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부성애착과 부성정체성 간의 관련성을 명확히 규명하여 긍정적 부성정체성의 형성을 돕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C. 결혼만족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생활해 왔던 두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고 새로운 역할과 지위를 획득한다(김태순, 2013).

만족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목표와 욕구의 달성정도에 의해 판단하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상태를 의미하고(김민녀, 2006) 이는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개념으로 그 의미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보편화 되어있다.

결혼만족도란 결혼 전 결혼에 대해 가졌던 기대감과 실제 결혼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정의 일치정도를 말하며(Lewis & Spanier, 1979), Hawkin(1968)은 결혼생활의 전반에서 부부 개인이 경험하는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고, Hicks와 Platt(1970) 역시 결혼만족도를 결혼을 통한 배우자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태도로 보았다.

즉,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한 개인의 만족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정현숙, 2001),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는 학자들마다 결혼 적응도(Marital Adjustment), 결혼 안정성(Marital Stability), 결혼 행복도(Marital Happiness), 결혼 성공도(Marital Succession), 결혼의 질(Marital Quality)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전창길, 2012).

부부가 어떠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로서 결혼만족도는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정주, 김용미, 2011).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은 부부의 심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고(이훈구, 2004),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하는 남성들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으나(신희정, 2007), 반대로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남성들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며 이로 인해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보살핌이 부족하게 되는데(김정주, 김용미, 2011),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때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안정된 애착과 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Goldberg & Esterbrooks, 1984). 즉,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남성들은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이고(우정희, 이미숙, 전춘애, 2003), 부정적인 자신의 감정을 자녀에게 해소하게 되며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백경숙, 2011).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은 부모역할 자신감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부모역할 자신감을 통해 양육참여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안선희, 김선영, 2004). 이는 부모가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이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신감이 강화될수록 역할수행을 더 잘하게 된다고 하였고(양경미, 김인숙, 2003), 부모의 역할수행과 만족도, 자신감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Bakhat, 2010).

따라서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높으면, 아버지의 역할 기술을 향상시켜 긍정적인 자신감으로 자녀와 안정감 있는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고 하여(문연옥, 2004) 결혼만족도는 아버지 됨의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통한 긍정적인 부성정체성의 형성으로 아버지로서의 발달과업 수행과 역할적응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생아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B.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 1개 대학병원 산부인과 병동과 2개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출생 후 신생아실에 입실한 신생아 아버지로서 1) 임신 37주 이후 2,500gm 이상의 건강한 신생아 아버지 2) 출생 24~96시간 이내에 속한 신생아 아버지 3) 본 연구목적 이해하고 동의한 자를 임의표집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출생 24~94시간 이내에 속한 신생아 아버지를 선정한 이유는 출산 후 병원에서 퇴원 전 자료수집을 시행하고, 산모의 모성정체성에 대한 선행연구(채미영, 황문숙, 2011; 송주은, 박보림, 2010)를 고려하였을 때, 대상자 선정이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150명 중 불충분한 설문지인 12명의 자료를 제외한 후, 최종 138명이 연구대상자로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자 수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G*power 3.1 프로그램(Faul, Erdfelder & Lang, 2009)을 이용하여 사후 검정력을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alpha=0.05$, 중간효과 크기 $f^2=0.15$,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 2개와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하게 설명되어 가변수 처리한 6개의 변수를 포함하여, 총 8개의 예측요인일 때, 본 연구대상자 138명에서 검정

력은 90.7%인 것으로 나타났다.

C. 연구도구

1. 부성정체성

부성정체성은 Osgood, Suci와 Tannenbaum(1957)이 개발한 어의구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근거로 고효정(1996)이 번안한 모성정체성 척도를 양경미와 김순례(2010)가 아버지에게 측정 가능하도록 문항을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아버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양극에 대립시킨 형용사를 이용하여 11문항의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로서의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고효정(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이었고, 아버지를 대상으로 수정된 양경미와 김순례(201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2. 부성애착

부성애착은 Greenberg와 Morris(1974)에 의해 분류된 아버지 애착의 7가지 속성을 근거로 김지영(199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시각적 인식, 촉각적 인식, 아기의 특성구분, 완전한 개체로 인식, 강한 관심과 애정, 심리적 고양감, 역할 인식 등 7가지 속성별 5문항씩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매우 그렇다 = 4점), 점수가 높을수록 부성애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3.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Roach, Feaizer와 Bowden(1981)에 의해 개발된 MS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최규련(1998)이 수정한 12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전혀 아니다 = 1점, 매우 그렇다 = 5점),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D. 자료수집방법

경기도 소재 1개의 대학병원 산부인과 병동과 2개의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간호부를 방문하여 자료수집의뢰서를 신청하여 동의를 얻고, 현장 부서의 승인을 얻어 2016년 9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신생아실 입실시간 24~96시간 이내에 해당되는 신생아 아버지를 대상으로 평일 저녁과 주말에 연구자가 직접 해당 병실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부, 그 자리에서 작성하도록 하여 바로 수거하였다. 설문지 작성시간은 평균 10분~15분이었으며 총 150부가 수거되었고,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인 12부를 제외하고 총 138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E.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대상자 보호를 위해 A대학병원 기관윤리 위원회(AJIRB-SBR-SUR-16-243)의 심의를 거쳐 연구절차에 대한 승인을 얻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비밀유지를 위해 회수용 봉투에 담아 밀봉하도록 한 후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여 개인 정보의 익명성을 유지하였고, 연구 목적으로만 자료를 활용할 것과 연구 종료 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자료를 폐기 할 것 등 개인 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후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F.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Kolmogorov-Smirnov test로 부성정체성에 대한 정규성 검정 결과,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p=.200$) 모수통계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SPSS 21.0 Win 통계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부성예측, 결혼만족도 및 부성정체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성정체성의 차이는 independent sample t-test 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e test로 사후검정하

였다.

4. 대상자의 부정애착, 결혼만족도 및 부정정체성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부정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료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후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A.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신생아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4.01 ± 4.80 세로, '30대'가 89명(64.5%)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6명(18.8%), '40대'가 23명(16.7%)이었다. 산모 연령의 평균은 32.01 ± 4.23 세로, 산모의 연령 또한 '30대'가 93명(76.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9명(28.3%), '40대'가 6명(4.3%) 순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학력은 '대졸'이 101명(73.2%), '고졸이하'가 21명(15.2%), '대학원졸'이 16명(11.6%)이었고, 종교는 '없음'이 94명(68.1%)으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직업은 '회사원'이 79명(57.2%), '자영업'이 13명(9.4%), '서비스업'과 '전문직'이 각각 11명(8.0%), '공무원'이 10명(7.2%), '기타'가 9명(6.5%), '교육직'이 5명(3.6%) 순이었다.

이들의 월수입은 '201~400만원'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72명(52.2%), '401만원이상'이 60명(43.5%), '200만원이하'가 6명(4.3%) 순이었고. 계획된 임신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20명(87.0%)이었고, 분만형태는 '제왕절개'가 91명(65.9%), '자연분만'이 65명(47.1%)이었다.

아기순위는 '첫째아이'가 91명(65.9%), '둘째아이이상'이 47명(34.1%)이었고, 산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는 80명(58.0%)으로 산전교육에 참여한 대상자인 58명(42.0%) 보다 많았으며, 원부성유형은 '사랑은 있으나 표현은 잘 하지 않는 유형'이 81명(58.7%), '사랑이 많으며 잘 표현하는 유형'이 38명(27.5%), '사랑도 표현도 부족한 유형'이 19명(13.8%) 순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8)

특성	범주	실수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연령	20대	26	18.8	34.01±4.80
	30대	89	64.5	
	40대	23	16.7	
산모연령	20대	39	28.3	32.01±4.23
	30대	93	76.4	
	40대	6	4.3	
학력	고졸이하	21	15.2	
	대졸	101	73.2	
	대학원졸	16	11.6	
종교	유	44	31.9	
	무	94	68.1	
직업	회사원	79	57.2	
	공무원	10	7.2	
	서비스업	11	8.0	
	자영업	13	9.4	
	교육직	5	3.6	
	전문직	11	8.0	
	기타	9	6.5	
월수입	200만원이하	6	4.3	
	201-400만원	72	52.2	
	401만원이상	60	43.5	
계획임신	유	120	87.0	
	무	18	13.0	
분만형태	자연분만	65	47.1	
	제왕절개	91	65.9	
아기순위	첫째아이	91	65.9	
	둘째아이이상	47	34.1	
산전교육참여	유	58	42.0	
	무	80	58.0	
원부성유형*	사랑이 많으며 잘 표현하는 유형	38	27.5	
	사랑은 있으나 표현은 잘 하지 않는 유형	81	58.7	
	사랑도 표현도 부족한 유형	19	13.8	

* 원부성유형 :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표현

B. 연구대상자의 부성애착, 결혼만족도 및 부성정체성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부성애착, 결혼만족도 및 부성정체성 정도는 <표 2>와 같다.

연구대상자가 인지하는 부성애착은 평균 119.44±12.32점(최소 84점~최대 138점), 결혼만족도는 평균 50.75±6.60점(최소 31점~최대 60점), 부성정체성은 평균 58.83±10.89점(최소 21점~최대 77점)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부성애착, 결혼만족도 및 부성정체성 정도

(N=138)

변수	평균±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가능점수범위
부성애착	119.44±12.32	84	138	35-140
결혼만족도	50.75±6.60	31	60	12-60
부성정체성	58.83±10.89	21	77	11-77

C.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정정체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정정체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정정체성은 연령($F=3.069$, $p=.060$), 산모연령($F=0.996$, $p=.372$), 학력($F=0.067$, $p=.935$), 종교($t=0.900$, $p=.370$), 직업($F=0.662$, $p=.681$), 분만형태($t=0.239$, $p=.812$), 산전교육참여($t=0.872$, $p=.38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에, 월수입($F=3.454$, $p=.034$)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사후검정 결과 유의하지 않았고, 계획된 임신을 한 대상자($t=3.084$, $p=.002$), 아기순위가 둘째아이 이상의 대상자($F=-2.346$, $p=.021$), 원부성유형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많으며 잘 표현하는 유형’의 대상자가 ‘사랑도 표현도 부족한 유형’의 대상자에 비해 부정정체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105$, $p=.019$).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성정체성

(N=138)

특성	범주	M±SD	t or F (p)	Scheffe
연령	20대	54.15±11.45	3.069 (.060)	
	30대	60.03±10.37		
	40대	59.43±11.26		
산모연령	20대	56.85±11.60	0.996 (.372)	
	30대	59.49±10.58		
	40대	61.50±10.78		
학력	고졸이하	58.86±10.82	0.067 (.935)	
	대졸	58.67±11.16		
	대학원졸	59.75±9.71		
종교	유	60.05±10.62	0.900 (.370)	
	무	58.26±11.01		
직업	회사원	58.10±10.14	0.662 (.681)	
	공무원	61.60±10.42		
	서비스업	62.73±13.54		
	자영업	61.15±14.76		
	교육직	59.40±13.35		
	전문직	57.18±10.32		
	기타	55.67±8.20		
월수입	200만원이하 ^a	51.17±12.30	3.454 (.034)	
	201-400 ^b	57.54±10.20		
	401만원이상 ^c	61.13±11.13		
계획임신	유	59.90±10.81	3.084 (.002)	
	무	51.67±8.66		
분만형태	자연분만	59.06±10.86	0.239 (.812)	
	제왕절개	58.62±10.98		
아기순위	첫째아이	57.45±11.86	-2.346 (.021)	
	둘째아이이상	61.49±8.16		
산전교육참여	유	59.78±10.50	0.872 (.385)	
	무	58.14±11.17		
원부성유형	사랑이 많으며 잘 표현하는 유형 ^a	58.10±10.97	4.105 (.019)	a>c
	사랑은 있으나 표현은 잘 하지 않는 유형 ^b	62.55±10.76		
	사랑도 표현도 부족한 유형 ^c	54.47±8.78		

D. 연구대상자의 부성애착, 결혼만족도 및 부성정체성 간의 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부성애착, 결혼만족도 및 부성정체성 간의 관계는 <표 4>와 같다.

부성정체성과 주요 탐색요인인 부성애착,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성정체성은 부성애착,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부성애착이 높을수록($r=.405, p<.001$),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r=.520, p<.001$) 부성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대상자의 부성애착, 결혼만족도 및 부성정체성 간의 관계

(N=138)

	부성애착 $r(p)$	결혼만족도 $r(p)$	부성정체성 $r(p)$
부성애착	1		
결혼만족도	.532 ($<.001$)	1	
부성정체성	.405 ($<.001$)	.520 ($<.001$)	1

E. 연구대상자의 부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부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5>와 같다.

신생아 아버지의 부성정체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가 0.153 ~ 0.942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61 ~ 6.726으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았으므로 자료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를 분석한 결과, Durbin Watson 검정결과는 1.813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정규성 분포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찰치들의 영향력 정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관찰치의 Cook's distance 값이 0.133 이하로서 기준치인 1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영향점으로 추정되는 관찰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진단 결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가 회귀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분석을 위하여 부성정체성의 주요 탐색변인인 부성애착, 결혼만족도와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월수입(준거집단: 200만원 이하), 계획임신(준거집단: 계획된 임신), 아기순위(준거집단: 첫째아이), 원부성유형(준거집단: 사랑도 표현도 부족한 유형)을 가변수 처리한 후 독립변수로 함께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성애착($t=2.379, p=.019$), 결혼만족도($t=3.790, p<.001$)가 부성정체성과 관련된 유의한 변수로서 설명되었고, 독립변수들이 포함된 회귀모델은 유의하였으며($F=8.791, p<.001$), 이들 변수에 의해 부성정체성의 설명력은 31.4% 이었다.

<표 5> 연구대상자의 부정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38)

요인	B	Std. Error	β	t	p
상수	0.825	9.192		0.090	.929
월수입 (201만원-400만원)*	5.702	3.849	0.269	1.481	.141
월수입 (401만원 이상)*	6.822	3.935	0.322	1.749	.083
계획임신 (계획되지 않은 임신)	-2.953	2.936	-0.094	-1.232	.220
아기순위 (둘째아이 이상)	1.417	1.746	0.059	0.811	.419
원부성유형 (사랑이 많으며 잘 표현하는 유형)†	1.950	2.705	0.082	0.721	.472
원부성유형 (사랑은 있으나 표현은 잘 하지 않는 유형)†	1.380	2.351	0.064	0.587	.558
부성애착	0.184	0.078	0.213	2.379	.019
결혼만족도	0.569	0.150	0.355	3.790	<.001

$R^2=.355$, Adjusted $R^2=.314$, $F=8.791$ (<.001)

* Referent: 월수입 (200만원 이하)

† Referent: 원부성유형 (사랑도 표현도 부족한 유형)

V. 논의

본 연구는 신생아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정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로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어머니됨의 과정을 보고하였으나 (정연이, 김혜원, 2014; 채미영, 황문숙, 2011; 송주은, 박보림, 2010; 신희선, 2004), 본 연구자는 육아에 있어서 모성정체성 못지않게 아버지 됨의 과정도 중요할 것임에 착안하여 본 연구를 부정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저출산으로 인한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경기도 소재 1개의 대학병원 산부인과와 2개의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아버지를 임의표집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상자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생아의 건강상태로 인한 외생변수를 배제하기 위해 고위험 신생아를 제외하여 대상자의 속성을 동질하게 유지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탈락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문시점을 분만 후 24시간 이후로 설계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로부터 설문지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설문의 탈락률을 10% 이내로 유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부정정체성은 평균 58.83 ± 10.89 점(77점 만점)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임부 배우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부정정체성 점수인 55.66 ± 8.38 점(최경은, 2016), 태교 프로그램 제공 전 임부 배우자 25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56.8 ± 8.9 점(양경미, 김순례, 2010)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모성 정체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긍정적으로 높아졌던 연

구결과에 근거하여(고효정, 1996), 부정정체성 역시 임신과정에서 보다 출산 이후에 더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성은 배우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부터 태아를 인식하기 시작하여 특히 태동이 시작되는 임신 중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아버지 됨을 준비하고, 분만 후 신생아 돌봄에 열중함으로써 아버지 됨을 비로소 강하게 느끼게 된다고 하여(김영두, 이대균, 2011), 부정정체성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는 개념이라는 것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정정체성은 계획된 임신을 한 대상자, 아기순위가 둘째아이 이상의 대상자, 원부성유형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많으며 잘 표현하는 유형’의 대상자가 ‘사랑도 표현도 부족한 유형’의 대상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본 연구결과는 임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임신 여부, 아기순위 즉, 산과력에 따른 부정정체성에 차이가 없었던 선행연구의 결과(최경은, 2016)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남성이 아기의 출생으로 담당해야 할 새로운 역할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임신의 계획여부가 부정정체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계획된 임신을 통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전환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편,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모성정체성이 높았던 결과에 근거하여(오현이, 2001) 본 연구에서는 초산과 경산모 배우자를 모두 연구대상자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아기순위가 둘째아이 이상인 대상자 즉, 경산모 배우자의 부정정체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결과로 사료되나, 선행연구의 결과(최경은, 2016)와 일치하지 않아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의 중단적 연구를 통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부성유형에 따른 부성정체성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많으며 잘 표현하는 유형’의 대상자가 ‘사랑도 표현도 부족한 유형’의 대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부모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인 지지가 부성역할을 수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신희정, 2007)와 일치하였으며, 이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세대 간 전이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세대를 위해 아버지 됨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신의 아동기 경험을 바탕으로 부성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부성정체성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고려한 변수인 부성애착은 평균 119.44±12.32점(138점 만점, 5점 척도로 환산 시 3.41±0.35점)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자연분만에 참여한 배우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점수인 3.43±0.36점(5점 만점)(김은숙, 2015), 제왕절개 분만에 참여한 산모 배우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점수인 124.69±6.81점(최미란, 김현경, 2013)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분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산모 배우자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반면에, 본 연구 대상자 중 제왕절개 분만 즉, 분만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가 65.9%에 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은 산모 배우자가 분만에 참여한 경우 부성애착이 높게 나타났고, 가족분만에 참여한 배우자가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에 비해 부성애착이 유의하게 높았던 선행연구(황은주, 2003) 결과에 기인한다. 따라서 분만과정에 배우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부성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결혼만족도는 평균 50.75±6.60점(60점 만점, 5점 척도로 환산 시

4.22±0.55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유아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혼만족도 점수인 4.10±0.57점(5점 만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김태순, 2013). 이는 본 연구대상자 중 65.9%가 초임부부였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의 6단계 중 1단계인 결혼으로부터 첫 자녀의 출산 전까지 즉, 자녀가 없는 시기인 결혼적응기로(김태현, 이성희, 1996), 다른 발달단계에 비해 스트레스가 적고 상대적으로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인다는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김민녀, 2006).

이상과 같이 단변량 분석에서 부성정체성에 차이를 보였던 계획임신, 아기 순위, 원부성유형과 부성정체성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고려하였던 부성애착, 결혼만족도를 독립변수로 모두 투입하여 입력(Enter) 방식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부성애착과 결혼만족도가 의미있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결혼만족도가 신생아 아버지의 부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의한 변수로 설명되었다.

결혼만족도가 부성애착보다 부성정체성에 크게 기여하는 변수로 설명된 이유는 아버지와 자녀 둘 사이의 상호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남성이 현재의 부부생활에 만족하는 정도와 배우자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의 정도가 부성정체성의 형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임신과정부터 산전준비교실 또는 예비부부교실 등에서 부부 서로간의 격려와 지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부 갈등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전반적인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며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명된 연구대상자의 부성애착 점수는 최대 138

점(점수가능범위; 35~140), 결혼만족도는 최대 60점(가능점수범위; 12~60), 부정정체성은 최대 77점(가능점수범위; 11~77점)으로, 이들 각 변수들의 측정값이 Ceiling Effect를 보였고, 이는 사회적 소망감의 반영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 자체가 부정의 본질을 민감하게 측정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차이를 민감하게 구별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추후 부정의 특성을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생아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성정체성은 계획된 임신인 경우, 아기 순위가 둘째아이 이상일 때, 원부성유형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많으며 잘 표현하는 유형’이 ‘사랑도 표현도 부족한 유형’에 비해 부성정체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성애착, 결혼만족도 및 부성정체성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성애착과 결혼만족도가 부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설명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부성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부재로 인해 모성의 도구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성이 지닌 고유의 특성에 대해 파악함에 있어 한계가 있어 부성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2. 저출산으로 인한 조사대상 확보의 어려움으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많은 대상자와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3. 산과력에 따른 부정정체성의 차이가 확인되어 초산모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4. 아버지 됨의 과정 속에서 부정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한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고효정 (1996). *취업유무에 따른 초산모의 역할 긴장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형성 및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김민녀 (200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1(4), 655-671.
- 김아림 (2015).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후 미숙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발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영두, 이대균 (2011). 초보아버지들의 양육특성과 아버지됨의 변화과정. *어린이 문학교육연구*, 12(1), 353-380.
- 김영희, 신희정, 채영문 (2007). 원가족의 정서분위기, 결혼만족도 및 부모역할 자신감이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2), 67-87.
- 김은숙 (2015). *분만참여 배우자의 분만경험인식, 부정애착 및 부정역할자신감*. 남부대학교 보건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정주, 김용미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사회·심리 특성과 아동기 경험이 아버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교육학회지*, 20(1), 113-129.
- 김지영 (1994). *아버지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정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지현 (2002).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애착 정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태순 (2013).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 결혼만족도 및 부모역할이 유아기 자녀*

-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태현, 이성희 (1996). *결혼과 사회*. 서울: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 문연옥 (2004). *유아기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과 양육참여에 관련된 요인*.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충북.
- 방미란, 이정희, 이지애, 정지윤, 박세영, 안옥심, 박숙희 (2000). 산욕초기 어머니됨과 돌봄 자신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6(2), 291-304.
- 백경숙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와 결혼만족도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6(2), 291-304.
- 서영옥 (2011). *부부갈등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감사의 조절 효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성미혜, 주경숙 (2007). 초산모의 아동기 경험과 양육태도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1(1), 1-9.
- 송주은, 박보림 (2010). 산후조리원 이용여부에 따른 초산모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 및 모성역할적응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40(4), 503-514.
- 송혜림, 고선강, 박정윤, 권혜진, 김유경, 진미경 (2010). 가족친화환경 측면에서 본 남성의 아버지 역할 수행 실태. *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341-361.
- 신희선 (2004). NICU에 입원한 미숙아 어머니의 모성정체성. *아동간호학회지*, 10(1), 117-125.
- 신희정 (2007). *원가족의 정서분위기, 결혼만족도 및 부모역할 자신감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충북.
- 안선희, 김선영 (2004). 가족의 건강성과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

- 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2), 219-230.
- 양정미, 김순례 (2010). 태교 프로그램이 초임 부부의 부모-태아 애착과 부모의 정체성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40(4), 571-579.
- 양미숙, 김인숙 (2003). 산욕기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간호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모자보건학회지*, 7(1), 19-32.
- 연은모, 최효석, 홍운정, 김정아 (2014). 영유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 양육협조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특성의 매개효과와 배우자의 취업유무의 조절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회*, 86, 51-78.
- 오현이 (2001). 산욕기 산모의 모성정체성, 어머니역할수행자신감과 산후우울과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5(2), 255-266.
- 우정희, 이미숙, 전춘애 (2003).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1(12), 91-101.
- 이세미 (2009). *첫 아버지 되기에 관한 현상학적 체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윤정 (2015). 대학생의 부모됨 동기, 부모됨 인식, 부모역할 자신감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92, 1-18.
- 이지민 (2013). 20~30대 기혼여성의 원가족분화경험, 부부의사소통 및 부부친밀감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6), 23-38.
- 이훈구 (2004). *사회심리적 안녕: 사회불안, 신뢰, 그리고 행복*. 서울: 법문사.
- 임정아, 유은광 (2002). 산후 아버지 교실이 산욕기관리와 신생아 돌보기의 지식정도와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3), 345-357.
- 전창길 (2012).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유아기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지각*

- 과 양육참여행동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정미라, 장수경, 이혜진 (2012). 산후 아버지 교실이 산육기관리와 신생아 돌보기의 지식도와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성간호학회지*, 8(3), 345 -357.
- 정연이, 김혜원 (2014). 산후우울의 영향요인과 모성정체성과의 관련성.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2). 29-37.
- 정현숙 (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2), 205-223.
- 주경숙, 성미혜 (2009). 초산모 배우자의 아동기 경험, 부성애착, 부성역할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5(3), 205-215.
- 주은경, 유은광 (2015). 남편의 산후조리 인식, 교육요구도 및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1(2), 93-105.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7).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http://korea1391.org/new/bbs/board.php?bo_table=report
- 채미영, 황문숙 (2011).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이 초산모의 모성정체성과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가정간호학회지*, 18(2), 88-98.
- 최경은 (2016). *고위험군과 정상군 임부배우자의 결혼만족도, 태아애착과 부성정체성 비교*.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수원.
- 최규련 (1998). *한국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최연순, 조희숙, 장순복, 장춘자, 최양자, 박영숙 등 (2010). *여성건강간호학*, 서울: 수문사.

- 최미란, 김현경 (2013). 아버지의 제왕절개 분만 참여 프로그램이 부아애착에 미치는 효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2), 75-87.
- 황은주 (2003). 아버지의 가족분만 참여유무에 따른 부성애착과 역할자신감의 비교.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
- Ainsworth, M. D. (1973).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B. Caldwell & H. N. Riccuit(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pp. 1-9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akhat, Y., & Lee, R. A. (2010). A survey of Russian women regarding the presence of companion during labor. *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109(3), 201-203.
- Barclay, L., & Lupton, D. (1999). The experiences of new fatherhood: a socio-cultural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9(4), 1013-1020.
- Berger, L. M., & MaLanahan, S. S. (2015). Income, Relationship Quality, and Parenting: Associations with Child Development in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7(4), 996-1015.
- Bowen, A., & Muhajarine, N. (2006). Antenatal depression. *The Canadian nurse*. 102(9). 26-30.
- Bowen, S. M., & Miller, B. C. (1980). Paternal attachment behavior as related to presence at delivery and preparenthood classes: a pilot study. *Nursing Research*, 29(5), 307-11.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Th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78.

Erikson, E. H. (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1), 56–121.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 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60.

Goldberg, W. A., & Esterbrooks, M. A. (1984). Role of marital quality in toddler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3), 504–514.

Greenberg, M., & Morris, N. (1974). Engrossment: the newborn's impact upon the father. *Th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4(4), 520–531.

Hawkins, J. L. (1968). Associations between Companionship, Host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0(4), 647–650.

Hicks, M. W., & Platt, M. (1970). Marital Happiness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 Research in the Sixt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2(4), 553–574.

Lewis, R. A., & Spainer, G. B. (1979).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Free press.

Meleis, A. I., Sawyer, L. M., Im, E. O., Hilfinger Messias, D. K., & Schumacher, K. (2000). Experiencing transitions: an emerging middle-range theory. *Advances in Nursing Science*, 23(1), 12–28.

Mercer, R. T. (1985). The process of maternal role attainment over the first

- year. *Nursing Research*, 34(4), 198-204.
- Osgood, C. F., Suci, G. J., & Tannenbaum (1957). *The Measure of meaning*. Illinoi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Premberg, A., Hellström, A. L., & Berg, M. (2008). Experiences of the first year as father.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 22(1), 56-63.
- Roach, A. J., Fraizer, L. P., & Browden, S. R.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359-367.
- Rohner, R. P., & Veneziano, R. A. (2001). The importance of father love: History and contemporary evidenc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4), 382-405.
- Russell, C. S. (1974). Transition to Parenthood: Problems and Gratific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6(2), 294-302.
- Sanderson, S., & Thompson, V. (2002). Factors Associated with Perceived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Sex Roles*, 46(3), 99-111.
- Weaver, R. H., & Cranley, M. S. (1988). An exploration of paternal-fetal attachment behavior. *Kango Kenkyu. The Japanese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1(4), 313-319.

<부록 1>



심의결과통지서

☎ 16499 수신시 접수구 코드값은 164번지 아주대학교병원 불경 6층 기관연구윤리심의실 / ☎ 031-219-7065 / 주소 --- / 달 앞마치

수신	연구책임자	승미순	연구의뢰기관	없음
			연구비지원기관	없음
			임상시험대행기관	없음

2016년 08월 24일에 접수된 보통안건 (보통 * 신수심의)에 대하여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신수심을 통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연구 승인번호	AJIRB-9BR-SUR-16-243	임상시험 단계	
연구과제명 및 번호	신생아 아버지의 부정중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예정기간	최종 승인일로부터 ~ 2017년 02월 28일		
승인일자	2016년 08월 05일		
지속심의 보고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의 유효성 또는 안정한 연구-년 1회(12개월 마다) ○ 불충분의 유효성을 내포한 연구-분기별 또는 년 2회(6개월 마다) ○ 예측 불가능 또는 예측 가능한 심각한 위험을 내포한 연구-(예)에 포함자 연구 종료 시 또는 단계 별 연구 종료 시) ○ 기 타 		
IRB 승인 유효 만기일	2017년 08월 04일		
연구책임자	승미순		
연구의뢰기관	없음		
연구비 지원기관	없음		
임상시험 대행기관	없음		
위원회 심의			
심의일자	2016년 08월 05일	심의 장소	-
심의 결과			
● 승인 ○ 시정승인 ○ 보통* 신수심의 ○ 보통* 정기심의 ○ 무결 ○ 사전조결			

아주대학교병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통지서

주 16499 수원시 옹골구 옹골로 164번지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5층 기관연구윤리심의실 / ☎ 031-219-7065 / 전송 --- / 알
람 안미회

내 용
1. 심의내용 (별첨1)
2. 심의문서 목록 (별첨 2)
* 참고사항
<p>제출 위원회는 ICH-GCP,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약윤리 지침서, 의료기기 지침서, 생명윤리 지침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p> <p>제출 물자에게 기재된 사항은 아주대학교병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합니다.</p> <p>제출 연구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있을 경우 해당위원을 배제하였습니다.</p> <p>제출 임상시험실시기관은 미국 보건부 임상연구안전국 「OHRP(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s)」에서 아래와 같이 등록 인증을 통과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HRP 시험기관 등록번호: IORG0001955 * OHRP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등록번호: IRB00002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jou U Hoop IRB #1 (Location of the IRB #1 22404) - Ajou U Hoop IRB #2 (Location of the IRB #2 22405) - Ajou U Hoop IRB #3 (Location of the IRB #3 22406) - Ajou U Hoop IRB #4 (Location of the IRB #4 22559) * OHRP 미 연방 임상시험실시기관 자격인증번호: FWA00002740 (Federal Wide Assurance)

승인일자 : 2016년 09월 05일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노재영 :



님.

아주대학교병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

<부록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 설명문은 여러분에게 본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생아 아버지의 부정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자료수집방법은 자가보고형의 설문지 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대략 150여명의 신생아 아버지가 참여하게 됩니다. 설문조사는 1회 시행되며, 설문지는 부성애착 35문항, 결혼만족도 12문항, 부정정체성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설문지 작성 예상 소요시간은 대략 10-15분 정도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에 관한 어떠한 인적사항이나 정보도 노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의 참여는 자발적이며, 참여를 결정하신 후에도 그만둘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는 없습니다.

본 설문지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시하시고 모든 항목에 빠짐없이 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지 작성 후 회수용 봉투에 담아 밀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공하신 답변은 귀중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어 질 것이며, 설문지 작성 후에는 5,000원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될 것입니다.

위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바쁘시더라도 간호연구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성심껏 응답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여하여 주시고, 정성껏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에 협조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9월

지도교수 : 송미숙 교수

석사과정 : 홍은주 드림

소속 및 직위: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연구자 E-mail: habourb@nate.com

연락처 : 010-8662-0173

연구 피 보험자로서의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다면, 이 연구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아주대학교 기관윤리심의위원회 : 031-219-5569, 4061, 7065

<부록 3>

1) 부성애착

※ 다음은 부성애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느낌의 정도에 따라서 해당란에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기와 눈을 맞추려 노력한다.				
2	아기를 만지고 싶다.				
3	아기는 나 혹은 가족을 닮았다.				
4	아기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생각한다.				
5	아기에게 금방 정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6	아기가 있어 기쁘다.				
7	나는 아버지로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8	아기의 신체 곳곳을 살펴보고 싶다.				
9	아기를 안기가 겁난다.				
10	다른 아기로부터 나의 아기를 구별해 낼 수 있다.				
11	아기를 부르면서("아기야" 혹은 이름이나 애칭) 얘기를 한다.				
12	아내보다 태어난 아기에게 더 주위를 기울인다.				
13	아기의 탄생으로 자신감이 증가되지는 않는다.				
14	나는 아직 이 아기의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15	아기를 볼 때 웃거나 말하게(어르게) 된다.				
16	아기와 함께 있고 싶다.				
17	아기는 나를 끄는 강한 매력이 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	원하던 성(아들, 딸)이 아니라 섭섭하다.				
19	아기의 반응을 얻기 위해 자극하고 싶다.				
20	나는 아기가 자랑스럽다.				
21	아기를 돌볼 자신이 있다.				
22	나의 아기를 볼 때 다른 아기를 볼 때와 느낌이 같다.				
23	아기를 안아주고 싶다.				
24	나의 아기는 내가 상상했던 생김새와 다르다.				
25	내 아기는 보고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6	아기가 자주 보고 싶다.				
27	처음 아기를 본 후에 자신이 성숙된 느낌이다.				
28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29	나의 아기가 예쁘다.				
30	아기에게 입 맞추고 싶다.				
31	아기가 정말 내 아기라고 느껴진다.				
32	갓 태어난 아기도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33	아기가 잘 먹고, 잘 자는지 궁금하다.				
34	아기의 탄생이 경이롭게 느껴진다.				
35	아버지도 어머니와 같이 아기를 양육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2) 결혼만족도

※ 다음은 결혼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느낌의 정도에 따라서 해당란에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지금까지 나의 결혼생활은 성공적이었다.					
2	나의 결혼생활은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다.					
3	나의 결혼생활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다.					
4	배우자는 나를 당황하게 하고 신경을 날카롭게 할 때가 있다.					
5	나의 결혼생활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6	나는 배우자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7	나의 결혼생활은 다른 어떤 일보다 나에게 큰 만족감을 준다.					
8	나는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한 것을 후회할 때가 있다.					
9	배우자를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10	나의 결혼생활이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다.					
11	결혼생활을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일에 지칠 때가 있다.					
12	나는 확실히 나의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3) 부성정체성

※ 다음은 부성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느낌의 정도에 따라서 해당란에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서 나는									
1	재빠르다	7	6	5	4	3	2	1	느리다
2	기품 있다	7	6	5	4	3	2	1	기품 없다
3	강하다	7	6	5	4	3	2	1	약하다
4	다정하다	7	6	5	4	3	2	1	매정하다
5	좋다	7	6	5	4	3	2	1	나쁘다
6	성공적이다	7	6	5	4	3	2	1	실패다
7	차분하다	7	6	5	4	3	2	1	흥분을 잘한다
8	기꺼이 하다	7	6	5	4	3	2	1	마지못해 한다
9	신중하다	7	6	5	4	3	2	1	신중하지 않다
10	완벽하다	7	6	5	4	3	2	1	부족하다
11	성숙하다	7	6	5	4	3	2	1	미숙하다

※ 다음의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항목에 괄호 안에 "V"하여 주시거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 세
배우자(산모)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 세
2.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떠합니까?
① 중졸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3.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회사원 ② 공무원 ③ 서비스업 ④ 자영업
⑤ 교육직 ⑥ 전문직 ⑦ 기타 ()
5. 가정의 총 월수입은 어떠합니까?
① 100만원 이하 ② 101~200만원 ③ 201~300만원
④ 301~400만원 ⑤ 401~500만원 ⑥ 501만원 이상
6. 귀하는 이번 임신을 원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아기의 출생 시 분만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정상분만 ② 제왕절개
8. 현재 출생한 아기는 몇 번째 아기입니까? ()

9. 귀하는 이번 임신 시, 산전교육(출산준비교실)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0. 귀하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떠합니까?

- ①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있으나 표현은 잘 하지 않는 분이다
②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많으며 잘 표현하는 분이다
③ 자식에 대한 사랑도 표현도 부족한 분이다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진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귀하의 가족과 아기의 건강을 기원하며, 가정에 평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ABSTRACT -

Factors Affecting Paternal Identity in Father of Neonate

Eun Ju Hong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Mi Sook Song, RN., Ph.D.)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paternal identity in the fathers of neonat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a total of 138 fathers of neonate who entered the newborn baby room in an obstetrics and gynecology (often abbreviated to OB/GYN) ward of a university hospital and two OB/GYN clinics in Gyeonggi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5, 2016 to October 20, 2016.

As a research tools, the paternal identity was measured using a scale with modified items to be adaptable to the fathers by Kyung-Mi Yang and Sang-Rae Kim (2010) using the maternal identity scale which was developed by translation of by Hyo-Jeong Go (1996) based on the Semantic Differential Scale of Osgood, Suci & Tannenbaum (1957), while the paternal

attachment was measured using a scale developed by Ji-Young Kim(1994), the marital satisfaction was measured using a scale modified by Kyu-Lyun Choi (1998) of MSS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ed by Roach, Feaizer and Bowden (1981).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1.0 Win program including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average score of paternal attachment in the subjects was 111.44 ± 12.32 point, the marital satisfaction was 50.75 ± 6.60 point, and the average score of paternal identity was 58.83 ± 10.89 point.

2.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the paternal identit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t was found that, in case of planned pregnancy ($t=3.084, p=.002$), when the baby's birth order is the second or higher ($F=-2.346, p=.021$), and the subjects whose original fatherhood type had displayed 'as having more love for the child and expressing the love better'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paternal identity than the subjects whose original fatherhood type had displayed 'less love and less expressions' ($F=4.105, p=.019$).

3. As a result of analyzing a correlation between the paternal identity and the paternal attachment, and the marital satisfaction, the paternal identity ha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paternal attachment and the marital satisfaction. Also, the higher the paternal attachment ($r=.405$, $p<.001$) was and the higher the marital satisfaction was ($r=.520$, $p<.001$), the higher the paternal identity was.

4.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paternal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as well as monthly income, planned pregnancy, birth order, and original paternity type that had show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univariate analysis, the paternal attachment ($t=2.379$, $p=.019$) and the marital satisfaction ($t=3.790$, $p<.001$) were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paternal identity. The regression model was significant ($F=8.791$, $p<.001$),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paternal identity by these variables was 31.4%.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various nursing interventions should be applied to the neonates' fathers in order to enhance the paternal identity through reducing the conflicts between the couple and increasing the satisfaction of married life.

Key words : Neonate, Paternal attachment, Marital satisfaction, Paternal identity